

“SK·삼성, 광주·전남에 ‘반도체 공장’ 투자를”

민주당 호남특위, 신설 쇄적 부지 2곳 추천
‘빛그린·미래차 국가산단’·‘첨단3지구’ 제시
이병훈 “정부,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 필요”

정부가 광주를 국가대표 반도체 첨단파
키징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
민주당 상설기구인 호남발전특별위원회
가 국내 반도체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광
주 빛그린산단·미래차 국가산단과 첨단3
지구 등 2곳을 반도체 공장 신설 쇄적으로
공식 추천했다.

이병훈 호남특위 수석부의원장은 15일
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“청년
인구 유출과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
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반도체 기업의
광주 유치”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
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향한 적극적인
유치 의지를 밝혔다.

그러면서 반도체공장 후보지로 광주·전
남 행정 접경지인 ‘빛그린·미래차 국가산
단’과 광주와 전남 장성이 맞닿은 ‘첨단3
지구’를 쇄적지로 제시했다.

빛그린·미래차 국가산단은 차량용 반도
체 공장이 들어서면 인공지능(AI) 모빌리
티와 연계해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
고, 첨단3지구는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앤
코테크놀로지코리아, 광주과학기술원
(GIST), 전남대와 연계해 첨단 패키징·반
도체 R&D 특화 거점 조성이 용이 한 점이
장점이다.

이 부위원장은 반도체공장 유치의 필요
성으로 ‘절박함’과 ‘당위성’을 들었다.

광주 인구가 139만명까지 줄었고, 지난
10년간 청년 4만4000명이 광주를 떠난
점, 지난해 순유출 인구의 73%가 청년층
인 점을 들어 “청년이 떠나지 않고, 머무
는 도시 조성이 시급하다”고 말했다.

이어 “광주·전남은 수도권과 달리 지정
학적으로 안정됐고, 해상풍력·태양광 등
재생에너지와 수량이 풍부하고, 반도체

인력 수급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AI국가
데이터센터와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등
기반시설과 연구·교육인프라를 모두 갖
추고 있고, 산업용지 또한 저렴하다”고 강
조했다.

아울러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 건립, 반
도체 인력 양성과 R&D 확대 지원, 반도체
연합공대 구성, RE100 산단 지정을 촉구
했다.

이 부위원장은 “최근 대통령 주재 보고
회에서 ‘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’ 구상이

공개됐고, 광주와 부산·구미가 핵심 거점
으로 언급됐다”며 “필요성과 여건을 두루
갖춘 광주·전남에 삼성과 SK, 중소 앵커
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
파격적 인센티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”고
밝혔다.

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용산
대통령실에서 열린 ‘AI 시대 K-반도체 비
전 및 육성전략 보고회’에서 광주를 ‘반도
체 첨단파키징(후공정) 하브도시’로 조성
하는 방안을 발표했다.

이에 따르면 반도체 생태계의 수도권 집
중 완화를 위해 광주~부산~구미를 잇는
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추진키로 하
고, 광주는 반도체 첨단파키징 분야 거점
으로 육성하기로 했다.

이를 위해 2030년까지 첨단파키징 실
증센터 구축,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등
지정, 첨제조-패키징 기업의 합작 펩 건
설 지원, 반도체 연합공대 구성 등을 주
진한다.

또,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(R&D) 센

터 유치를 통해 광주과학기술원에 ‘암
(Arm) 스쿨’을 설치하고, 이곳에서 2030
년까지 5년간 반도체설계 분야 전문인력
140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.

‘반도체 첨단파키징 기술’은 인공지능
(AI) 등 고성능 반도체 제조의 핵심기술
로 여러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통합해 데
이터처리 고속화, 소형화, 저전력화 등 반
도체 성능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.

양동민 기자 yang00@gwangnam.co.kr
장승기 기자 sky@gwangnam.co.kr

“尹,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”

내란특검, 180일 수사 마무리
사건 249건 접수·27명 기소

12·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
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5일 윤석열 전
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
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.

계엄의 목적은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
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·유지하기 위
함이었다고 판단했다. ▶관련기사 9면

김건희 여사의 ‘사법 리스크’도 권력 유
지를 목적으로 한 계엄선포에 일정 부분
영향을 미쳤다고 봤다.

계엄 준비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
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고, 남북 간 군사 긴
장 상태를 유발하기 위해 북한을 도발하는
등 전횡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.

국회 기능 정지를 위해 ‘부정선거’ 조
작’을 벌이려 한 사실도 수사를 통해 드러
났다.

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윤

이성오 기자 solee235@gwangnam.co.kr

특검은 지난 6월 18일부터 180일간의
수사를 통해 총 249건의 내란·외란 관련
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에 대한 처리를
완료했고, 미처리된 나머지 34건의 사건
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.

특검팀은 이날부터 인력을 재편하여
기소된 27명에 대한 공소유지 체계로 돌입
할 계획이다.

특검팀이 지금까지 기소한 인원은 총
27명이다.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
방해(7월), 일반이적(11월), 위증(12월)
혐의로 세 차례 기소됐다. 한여수 전 국무
총리, 조태웅 전 국가정보원장, 김용현 전
국방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8명, 정진석
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9
명, 여인형·문상호 전 사령관 등 군 관계
자 6명,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
정치인 1명이 기소됐다.

전라도는 15일 장성 남면 첨단3지구
에서 전남 제1호 데이터센터인 ‘장성 파
인데이터센터’ 착공식을 열었다.

장성도가 장성에서 도내 첫 데이터센
터 건설에 들어가며 인공지능(AI) 산업
협의회 세 차례 기소됐다. 한여수 전 국무
총리, 조태웅 전 국가정보원장, 김용현 전
국방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8명, 정진석
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9
명, 여인형·문상호 전 사령관 등 군 관계
자 6명,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
정치인 1명이 기소됐다.

장성도는 15일 장성 남면 첨단3지구
에서 전남 제1호 데이터센터인 ‘장성 파
인데이터센터’ 착공식을 열고, 인공지능
(AI) 중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
인프라 구축에 본격 나섰다.

이번 착공은 정부의 데이터센터 수도권
집중 완화 정책에 따라 체결된 첫 업
무협약(MOU) 사업이 실제 사업으로 이
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

착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, 이개
호 국회의원, 김한종 장성군수, 중앙부

처 관계자, CJ올리브네트웍스, 현대차증
권, 대우건설, 파인애플러스자산운용
(주) 참여기업 대표와 주민 등 300여 명이
참석해 뜻깊은 출발을 함께했다.

장성 파인데이터센터는 총 3959억원
을 투입해 26MW급 데이터센터 1기를
우선 구축하고, 향후 60MW급까지 단계
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. 지난 2023년
정부의 ‘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
정책’ 발표 이후 체결된 첫 업무협약
사업이다.

전남도는 2023년 업무협약 이후 투자
사와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, 관
련 행정 지원을 지속했다. 그 결과 산업

단지 환경개선 편드와 지역활성화 투자
펀드에 연이어 선정되면서 민간 투자사
와 임차사 모집에도 탄력이 붙었다.

센터는 2028년 2월까지 공시를 마치
고, 같은 해 3월부터는 운영에 들어갈 예
정이다. 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빅테크
기업의 전남 유입과 함께 데이터센터 구
축 문의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. 전남도
는 이를 계기로 지역 산업에 맞춘 AI 전
환과 AI 기업 육성을 골자로 한 권역별
AI 혁신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
침이다.

▶2면에 계속
박정렬 기자 holbu@gwangnam.co.kr
장성=이병범 기자 lhb6699@gwangnam.co.kr

한 줄의 해답, 대한민국을 잇다!

대한민국 미래에너지를 위한 단, 하나의 해답
한국전력이 에너지고속도로를 완성하겠습니다

한국전력

1. 자연계에 존재하는 무한한 에너지 : 재생에너지
2. 수도권과 지방이 고르게 성장하는 것 : 지역균형발전
3. 멀리 전기를 효율적으로 보내는 기술 : 초고압직류송전
4. AI시대 핵심 국가첨단산업 중 하나 : 반도체

U
국가 대표도로망
2024년 사업을 시작으로
2040년까지 전국을 '국가망'으로 하는
전력망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

Global Energy & Solution Leader

